

지역특성을 고려한 학교규모 적정화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ize of the school rationalization orientation considering the local characteristics

이 상 민* 조 창 희**

Lee, Sang-Min Cho, Chang-Hee

Abstract

School appropriate scale refers to the size of the school to minimize students' educational deficits and ensure an appropriate level of students, the number of classes, class size, etc., and maximize educational effects. Difficult set of absolute standards appropriate scale school, contemporary social situations and educational effects, and seek a comprehensive and reasonable direction, considering this is required. School appropriate scale it is preferable to consider the effect of conditions in areas such as education, curriculum, but it is common to set the range in terms of school operational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education funding, school environment. So the concept of the appropriate scale including the school's status changes associated with school size, is seeking a new direction is needed so that the school environment, etc. are considered.

키워드 : 학교규모, 적정규모, 교육효과, 지역특성

Keywords : school Size, appropriate scale, educational effects, community character

I. 서론

I-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적정규모학교는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환경의 충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적·시설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절대적인 적정규모학교의 기준 설정은 어렵지만, 시대적·사회적 상황 및 교육적 효과 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방향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적정규모학교는 교육적 효과, 교육과정운영, 학교 운영, 교육재정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범위를 설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통학환경 등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과소학교 및 과대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결손을 막고자 하는 취지이며, 이를 통해 한정된 교육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정규모학교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내 학생수 및 학교현황 분석,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현황분석, 적정규모학교 가이드라인(안) 제안 등의 순서로 적정화 방향설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I-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부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본 연구는 교육부 “2015년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및 신설수요적정관리지원사업”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

첫째, 공간적 범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학교급 범위는 초·중·고등학교로 한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규모적정화 방향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첫째, 적정규모학교 이론적 고찰을 실시한다.

둘째, 학생 및 학교 현황분석,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현황분석을 실시한다,

셋째,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방향을 설정한다.

넷째, 교육과정 운영적 측면을 중심으로 적정규모학교의 범위를 설정한다.

II. 적정규모 학교에 대한 이론적 고찰

II-1. 적정규모학교의 개념 및 효과

적정규모학교는 적정수준의 학생수,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등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교육 결손을 최소화하고,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규모의 학교를 의미한다. 절대적인 적정규모학교의 기준 설정은 어렵지만, 시대적·사회적 상황 및 교육적 효과 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방향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적정규모학교는 교육적 효과, 교육과정운영, 학교운영효과, 교육재정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통학환경 등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적정규모학교의 개념은 학교규모와 관련된 현황변화를 비롯하여, 통학여건 등이 고려되도록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적정규모학교의 효과는 우선 대규모 학교에 비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학교활동 참여도, 학교생활만족도 등에 긍정적일 수 있다. 또한 적정규모학교는 소규모학교의 학생들 보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시설을 제공하여 다양한 교육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적정규모학교는 학교규모(학생수, 학급수) 적정화를 통해 복식수업 및 상치교사, 순회교사 운영 등을 해소하여 교육의 질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적정규모학교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및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하여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적정규모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교우관계의 폭이 확대되고, 경쟁심 및 사회성 등이 확보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 끝으

로, 적정규모학교는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의 효과가 있다.

II-2. 선행연구 및 문헌분석

국내의 연구 모두 적정 학생수에 대하여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대체로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보다는 적은 학교규모를 제시하고 있다.

표1. 이론적 측면에서의 적정규모학교

| 학교급별 | 학업성취 | 생활지도 | 경제적 효율성 |
|------|---------|---------|-----------|
| 초등학교 | 300~400 | 300~400 | 450~700 |
| 중학교 | 400~600 | 300~600 | 600~800 |
| 고등학교 | 600~900 | 400~800 | 800~1,200 |

* 출처 : 허숙·강호감(2003), '적정 학교규모의 탐색'

적정한 학교규모 설정 시 최소 학생수는 국외는 초등학교 300명 이하, 중고등학교는 400명 이하이며, 국내는 초 201명 이상, 중고 600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구의 최소 최대학생수를 반영하면 초등학교 학생은 201명 이상 1,680명 이하이며, 중학생은 201명 이상 1,260명 이하로 나타났다. 교육적인 측면과 재정적인 측면 모두 고려할 경우 평균적인 학교규모는 약 600명 이상 900명 이하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교육적 효과를 고려한 적정학교 및 학급 규모

| 구분 | 초등학교 | 중학교 | 비고 |
|---------|---|------------------------|-------------|
| 적정학급 규모 | 학급당 12~18명 저학년 : 8~12명 고학년 : 12~18명 | 학급당 18~22명 (평균 20명) | 학급분반 기준 20명 |
| 학년당 학급수 | 2~3학급 (적정 2학급) | 3~6학급 (적정 4학급) | 농산어촌 기준 |
| 적정학교 규모 | 120명~270명 (적정 180명) | 180명~360명 (적정 240명) | - |

* 출처 : 유용상, 이재립(2012) '적정규모학교의 교육적 효과 분석 연구'

적정 학급수에 대한 국내외 연구를 종합하면, 최소 단위는 초 18학급, 중·고는 15학급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의 학급수 연구에서는 서울, 도시, 읍면 등 지역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대체로 24학급 정도를 적정 규모를 제안하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개 학년에 3~4학급 이상, 중·고등학교 6~8학급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적 효과에 끼치는 영향이 학교당 전체 학생수나 학급수 규모에 비

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OECD 기준에 근접한 급당 학생수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표3. 학급당 적정학생수 선행연구 사례

| 연구자 | 학교급 | 적정학급 |
|---------------------------|-------|----------------------------|
| | | 학급당학생수 |
| Ellis(1984) | 초·중·고 | 20명 미만 |
| Gilman & Tillitsky (1989) | 초·중·고 | 19.1명 > 29.9명 |
| 백성준(1997) | 초 | 광역시 30명내외 중소/읍면 25명내외 |
| | 중·고 | 30명 내외 |
| 강호갑(2003) | 초 | 초 저학년 20명 이하 고학년 20~25명 |
| | 중·고 | 20~30명 |
| 허숙(2003) | 초·중·고 | 35명 이하 |
| 민부자·홍후조(2011) | 초·중·고 | 15~25명 |

국내외 학급당 학생수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적정한 학급당 학생수는 초 20~25명 내외, 중·고등학교는 30~35명 내외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적정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규모는 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국가적인 재정투자가 뒤따라야 하므로, 현재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됨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적정 학급당 학생수 수준을 제안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III. 학생 및 학교 규모현황 분석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규모현황 및 추계를 살펴보고, 지역별 소규모 학교현황 특성을 분석하도록 한다.

III-1. 학생 및 학교 규모 현황

1) 장래 학생수 추계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수는 1980년 1,077만명 수준에서 1990년 970만명, 2000년 811만명, 2010년 734만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향후에는, 2010년 734만명이던 학생수는 2020년 545만명, 2030년 531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과거 추이를 보면 특히 초등학생의 감소율이 매우 높았으며 이를 근거로 판단했을 경우 향후에 중

고등학교의 급격한 감소추이를 예상할 수 있다.

표4. 2013~2040년 시·도별 학령인구 (단위:천명, %)

| 구분 | 전체 학령인구(6-21세) | | | | | |
|----|----------------|-------|-------|-------|----------------|----------|
| | '13년 | '20년 | '30년 | '40년 | '13년 대비'13년 증감 | '40년 증가율 |
| 전국 | 9,363 | 7,757 | 7,116 | 6,698 | -2,664 | -28.5 |
| 서울 | 1,633 | 1,273 | 1,154 | 1,080 | -553 | -33.9 |
| 부산 | 591 | 453 | 386 | 342 | -248 | -42 |
| 대구 | 481 | 377 | 318 | 286 | -195 | -40.5 |
| 인천 | 539 | 461 | 449 | 432 | -107 | -19.9 |
| 광주 | 327 | 267 | 238 | 222 | -105 | -32.2 |
| 대전 | 313 | 252 | 237 | 225 | -88 | -28.2 |
| 울산 | 230 | 190 | 169 | 156 | -73 | -32 |
| 세종 | 25 | 62 | 86 | 87 | 62 | 243.8 |
| 경기 | 2,385 | 2,081 | 2,003 | 1,923 | -462 | -19.4 |
| 강원 | 280 | 225 | 198 | 188 | -92 | -32.9 |
| 충북 | 295 | 244 | 229 | 219 | -76 | -25.6 |
| 충남 | 376 | 330 | 325 | 313 | -63 | -16.9 |
| 전북 | 350 | 283 | 247 | 232 | -119 | -33.9 |
| 전남 | 328 | 260 | 212 | 198 | -130 | -39.6 |
| 경북 | 463 | 367 | 312 | 284 | -180 | -38.8 |
| 경남 | 623 | 525 | 454 | 415 | -208 | -33.4 |
| 제주 | 122 | 108 | 98 | 95 | -27 | -21.9 |

* 출처 : 통계청 인구추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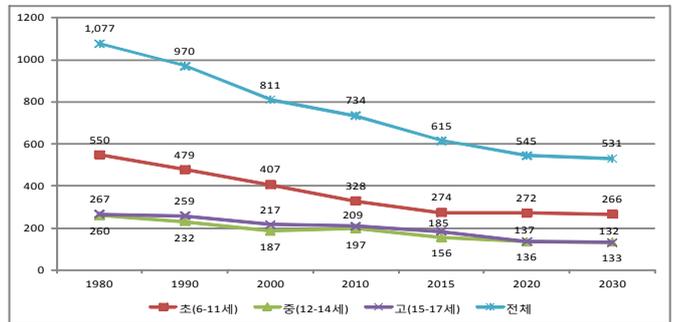


그림1. 연도별(1980년대 이후) 학령인구 추계(단위: 만명)

2) 학교규모 현황

연도별 전체 학교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0년 11,567개, 2011년 11,618개, 2012년 11,669개, 2013년 11,689개, 2014년 11,729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5. 초·중·고 및 지역유형별 학교규모(2015.4기준)

| 구분 | 학교당 학급수 | | | 학교당 학생수 | | | 학급당 학생수 | | |
|------|---------|------|------|---------|-------|---------|---------|------|------|
| | 초 | 중 | 고 | 초 | 중 | 고 | 초 | 중 | 고 |
| 전체 | 20.2 | 17.7 | 26.7 | 459.8 | 539.2 | 864.5 | 22.8 | 30.5 | 32.4 |
| 대도시 | 28.5 | 23.3 | 28.2 | 667.9 | 719.2 | 917.9 | 23.4 | 30.9 | 32.6 |
| 중소도시 | 25.8 | 23.8 | 30.7 | 656.3 | 777.1 | 1,017.9 | 25.4 | 32.6 | 33.2 |
| 읍지역 | 18.3 | 14.8 | 18.2 | 410.1 | 431.2 | 535.9 | 22.4 | 29.1 | 29.4 |
| 면지역 | 8.2 | 5.7 | 12.1 | 112.6 | 120.0 | 344.4 | 13.7 | 21.0 | 28.3 |
| 도서벽지 | 7.7 | 5.1 | 6.9 | 68.6 | 94.5 | 157.9 | 8.9 | 18.4 | 22.8 |

2015년 기준으로 지역유형별로 초등학교 규모현황을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학교당 평균학생수는 약 650여명(27학급), 읍지역은 410명(18학급), 면지역은 112명(8학급)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편차가 매우 컸으며 읍지역의 경우는 시

지역과 면지역의 중간적 규모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수 규모별로 학교현황을 살펴보면, 학생수 1~60명 이하가 17.3%, 61-120명 이하 8.9%였으며, 약 33.4%가 180명 이하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1~60명 이하가 초 23.5%, 중 16.3%, 고 2.2%로 초등학교의 소규모화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0명 이하의 경우 초 35.7%, 중 23.2%, 고 5.3%로 소규모화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집중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학교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1~60명 이하가 면·도서벽지 53.9%, 읍지역 10.9%, 시지역 1.1%로 면·도서벽지의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240명 이하 학교는 면·도서벽지 87.8%, 읍지역 34.8%, 시지역 7.2%로 나타나 면도서벽지의 소규모화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읍지역도 비교적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6. 지역유형별 초등학교 학교규모현황(2015.4기준)

| 학생수구간 (명) | 초등학교 | | 면/도서벽지 | | 읍지역 | | 시지역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1-60 | 1,455 | 23.5 | 1,257 | 60.2 | 128 | 19.1 | 70 | 2.0 |
| 61-120 | 753 | 12.1 | 518 | 24.8 | 107 | 15.9 | 128 | 3.7 |
| 121-180 | 234 | 3.7 | 98 | 4.7 | 34 | 5.0 | 102 | 2.9 |
| 181-240 | 193 | 3.1 | 50 | 2.4 | 32 | 4.7 | 111 | 3.2 |
| 241-300 | 228 | 3.6 | 45 | 2.1 | 39 | 5.8 | 144 | 4.1 |
| 301-360 | 206 | 3.3 | 21 | 1.0 | 31 | 4.6 | 154 | 4.4 |
| 361-420 | 233 | 3.7 | 10 | 0.4 | 27 | 4.0 | 196 | 5.7 |
| 421-480 | 256 | 4.1 | 13 | 0.6 | 26 | 3.8 | 217 | 6.3 |
| 481-540 | 276 | 4.4 | 19 | 0.9 | 43 | 6.4 | 214 | 6.2 |
| 541-600 | 268 | 4.3 | 9 | 0.4 | 29 | 4.3 | 230 | 6.7 |
| 601-660 | 254 | 4.1 | 4 | 0.1 | 21 | 3.1 | 229 | 6.6 |
| 661-720 | 241 | 3.9 | 4 | 0.1 | 15 | 2.2 | 222 | 6.4 |
| 721-780 | 244 | 3.9 | 5 | 0.2 | 26 | 3.8 | 213 | 6.2 |
| 781-840 | 235 | 3.8 | 2 | 0.1 | 15 | 2.2 | 218 | 6.3 |
| 841-900 | 204 | 3.3 | 5 | 0.2 | 16 | 2.3 | 183 | 5.3 |
| 901-960 | 158 | 2.5 | 5 | 0.2 | 14 | 2.0 | 139 | 4.0 |
| 961-1,020 | 147 | 2.3 | 3 | 0.1 | 16 | 2.3 | 128 | 3.7 |
| 1,021-1,080 | 137 | 2.2 | 5 | 0.2 | 12 | 1.7 | 120 | 3.5 |
| 1,081-1,140 | 114 | 1.8 | 4 | 0.1 | 8 | 1.2 | 102 | 2.9 |
| 1,141-1,200 | 74 | 1.2 | 1 | 0.0 | 6 | 0.9 | 67 | 1.9 |
| 1,201-1,260 | 82 | 1.3 | 2 | 0.1 | 6 | 0.9 | 74 | 2.1 |
| 1,261-1,320 | 44 | 0.7 | 1 | 0.1 | 4 | 0.6 | 39 | 1.1 |
| 1,321-1,380 | 45 | 0.7 | | | 5 | 0.7 | 40 | 1.1 |
| 1,381-1,440 | 22 | 0.3 | 1 | 0.1 | 2 | 0.3 | 19 | 0.5 |
| 1,441-1,500 | 17 | 0.2 | | | 1 | 0.1 | 16 | 0.4 |
| 1,501-1,560 | 24 | 0.3 | 2 | 0.1 | 3 | 0.4 | 19 | 0.5 |
| 1,561-1,620 | 12 | 0.1 | | | 2 | 0.3 | 10 | 0.2 |
| 1,621-1,680 | 9 | 0.1 | | | 1 | 0.1 | 8 | 0.2 |
| 1,681-1,740 | 11 | 0.1 | 1 | 0.1 | | | 10 | 0.2 |
| 1,741-1,800 | 3 | 0.0 | | | | | 3 | 0.0 |
| 1,801이상 | 8 | 0.1 | | | | | 8 | 0.2 |
| 총합계 | 6,187 | 100 | 2,085 | 100 | 669 | 100 | 3,433 | 100 |

도시지역의 경우 개발과 교육열에 의한 학생 쏠림(집중화)현상에 따른 과대학교와 구도심 소규모학교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생수 1,440명(48학급, 급당 30명 학교규모) 초과 학교수는 총 246개교로 초 84개교, 중 26개교, 고 136개교이

다. 시·도별로는 경기 93개교, 서울 84개교, 대구 20개교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현황별 학교규모 분석결과, 읍지역과 면지역의 경우 소규모학교, 도시지역의 경우 과대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시지역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의 소규모 학교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대부분 구도심지역의 학교인 것으로 판단된다.

소규모학교 및 과대규모의 적정규모화를 위해서는 초·중·고의 학교급 특성과 면·읍·도시 등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III-2.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현황

1)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현황

교육부는 이미 80년대부터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그 추진 배경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력 제고라는 교육적 논리와 교육재정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경제적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1982년부터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기간별로 통·폐합 기준이 변화되어 추진 주체 및 지원의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표7. 연도별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추진현황

| 연도 | 추진내용 및 통·폐합 실적 | 통·폐합 기준 |
|---------|---|---|
| '82~'98 | · 시·도교육청 자체 추진 · 영세사학 해산특례('97) ⇒ 3,743교 통·폐합 | · 180명('81.9), · 100명 권장('93.9) |
| '99 | · 정부 재정지원(2,577억원) ⇒ 971교 통·폐합 | · 100명 |
| '00~'05 | · 시·도교육청 자체 추진 ⇒ 183교 통·폐합 | · 100명 |
| '06~'09 | ·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 · 정부 재정지원(2,019억원) ⇒ 344교 통·폐합 | · 60명(농·어촌)/200명(도시) (시·도별 자체기준 설정 가능) |
| '10~'12 | ·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 ⇒ 350교 통·폐합 목표 | · 60명(농·어촌)/200명(도시) (시·도별 자체기준 설정 가능) |
| '13~'16 | ·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 ⇒ 610교 통·폐합 목표 | · 60명(농·어촌)/200명(도시) (시·도별 자체기준 설정 가능) |

교육부는 1981년 9월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을 마련하고 1982년부터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3년에 대상학교를 학생수 180명 미만 학교에서 100명 미만 학교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기준을 일부 보완하였다. 2006년 교육부는 분교 통·폐합의 경우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를, 분교장 통·폐합은 학생 수 20명 이하의 분교장을 대상으로 학부모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

한 60명이상의 학교 중에서도 통·폐합 여건이 조성되어 희망하는 학교와 200명 이하 도심 공동화 학교도 그 대상으로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기준에 의한 일률적인 통·폐합을 지양하고 도서벽지 지역과 반대가 심한지역 그리고 학생수 증가 예상 지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대안교육, 작은 학교 육성, 특성화 학교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였다. 2011년 들어 교육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을 수립하여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촉진시키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적정규모학교 정책은 지역적 여건이나 학교급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농·어촌 60명 이하 도시지역 200명 이하의 일률적 기준이 제시되고 있어 시대적 흐름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대적 상황 및 지역별 학교현황이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짐에 따라, 향후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의 경우 적정규모학교 기준 및 지역의 학교 현황(소규모, 과대 및 과밀) 및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III-3. 전문가 집단면적 (Focus Group Interview)

적정규모 학교 방향설정을 위해 전문가집중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는 총 3회 실시하였으며, 대상자는 교사, 전문가그룹, 시·도교육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교사그룹은 교사 5명, 교육부 2명, 연구진 2명 등 총 9명이 참석해 교육시수와 학교규모와의 상관관계, 적정학교 규모 및 학급당 학생수 등의 문제를 집중으로 토론하였다. 전문가그룹은 건축 2명, 도시계획 1명, 교육 1명 등 중앙투자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적정학교규모와 적정규모육성사업, 가이드라인 필요성 등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시·도교육청은 서울, 경기, 충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 각 2명, 세종 1명 등 7개 시·도 15명이 참석해 총 20명이 적정규모학교 가이드라인과 적정규모육성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 및 시·도 현황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교사그룹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교사업무와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 초, 중·고, 대·중·소, 농·어촌 등 이상적인 학교모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적정학교규모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

기준으로 18~24학급 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 학년 당 8학급(24학급)일 경우 모든 수업분야의 교원 확보 가능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초등학교도 한 개 학년당 4학급씩 24학급이 적정하며, 36학급 이상일 경우 생활관리, 동아리활동, 외부수업 등에 있어 과대학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재 12학급 규모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간, 학생 간 소통이 원활하나 45학급 정도의 과대화된 학교에서는 특별교실활용 등 수업운영이 어려우며, 구성원 간 소통이 매우 부족한 단점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학급당 학생수는 30명 초과 시 학생 관리가 어려우며, 모둠수업 시 24명 규모(6개 모둠 4~5명 배치) 정도가 유리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저학년은 20명 내외가 적정하나 20명 이하의 경우 체육활동(구기종목 팀 구성)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그룹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학교규모설정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육성사업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소규모학교의 통·폐합과 더불어 학교급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저학년의 경우는 연령과 통학환경 등을 고려해 통합 후라도 근거리의 기존학교를 사용하고 고학년은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통합학교로 통학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적정규모학교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야 가이드라인이 향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통·폐합 및 적정규모학교육성사업 진행 시 지역민의 반대가 심하여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국가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으며, 현실적인 시·도의견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시·도별의 여건이나 지역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시·도의 상황에 적합하도록 많은 의견수렴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IV. 학교규모 적정화 방향 설정

적정규모학교 기준(안)은 시·도별 특성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며, 기존 선행연구들의 교육적 효과와 교육과정의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상적인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기준(안)은 적정규모학교기준 및 소규모학교, 과대학교 범위를 제안하며,

향후 시·도교육청별로 지역현황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안)을 마련해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IV-1. 적정규모 학교 기준 설정

본 절에서는 정량적인 판단이 가능한 교육과정 운영을 중심으로 적정규모 학교의 기준을 설정하도록 한다.

1) 적정규모 학교 기준설정 방법

적정규모 학교의 범위 또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육적인 측면과 학교운영 측면, 교육재정의 효율성 측면 등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으나, 국내 다수의 연구를 종합할 경우, 적정한 학교규모를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다. 한형우(2002)¹⁾, 김윤경(2007)²⁾ 등 다수의 연구를 종합한 적정규모학교 준거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이다. 적정한 학교 규모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우선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을 들 수 있다.

둘째, 교육효과의 극대화이다. 교육효과의 극대화는 적정한 학교규모의 설정 시 보다는 적정한 학급 규모 설정을 위한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학교운영의 효율성이다. 학교의 교육시설 및 설비 확보 정도와 교장이나 교사들의 업무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학교규모를 설정할 수 있다.

넷째, 교육재정의 효율성이다. 학교에서는 제한된 가용재원의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학교규모 설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네가지 측면의 적정규모 설정 중에서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규모 기준을 설정하도록 한다.

이미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학교규모에 따른 교육의 효과는 연구목적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밖에 없는 정량화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교육재정의 효율성 측면은 이미 분석된 선행연구결과가 많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적인 측면을 중심

으로 적정규모 학교 기준을 설정하도록 한다.

2)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적정규모 학교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정한 학교급별 교육과정이 적정 교사수 확보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급학교별로 (전문)교과별 교사수를 학교 규모별로 산정하여 이를 통한 적정규모학교의 범주를 검토하도록 한다.

우선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별 평균수업시수는 약 18시간으로 이를 고려한 전담교과 교사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8. 초등학교 전담교과 소요 교사수

| 구분 | 교과목 | 과학 | 실과 | 체육 | 음악 | 미술 | 영어 |
|-----------|------|-----|-----|-----|-----|-----|-----|
| 수업 시수 | 총시수 | 408 | 136 | 408 | 272 | 272 | 340 |
| | 주당시수 | 12 | 4 | 12 | 8 | 8 | 10 |
| 전담 교원수 | 6학급 | 0.6 | 0.2 | 0.6 | 0.4 | 0.4 | 0.5 |
| | 12학급 | 1.2 | 0.4 | 1.2 | 0.8 | 0.8 | 1.0 |
| | 18학급 | 1.8 | 0.6 | 1.8 | 1.2 | 1.2 | 1.5 |
| | 24학급 | 2.4 | 0.8 | 2.4 | 1.6 | 1.6 | 2.0 |
| | 30학급 | 3.0 | 1.0 | 3.0 | 2.0 | 2.0 | 2.5 |
| | 36학급 | 3.6 | 1.2 | 3.6 | 2.4 | 2.4 | 3.0 |
| 특별 교실수 | 6학급 | 0.6 | 0.2 | 0.6 | 0.4 | 0.4 | 0.5 |
| | 12학급 | 1.1 | 0.4 | 1.1 | 0.7 | 0.7 | 0.9 |
| | 18학급 | 1.7 | 0.6 | 1.7 | 1.1 | 1.1 | 1.4 |
| | 24학급 | 2.2 | 0.7 | 2.2 | 1.5 | 1.5 | 1.9 |
| | 30학급 | 2.8 | 0.9 | 2.8 | 1.9 | 1.9 | 2.3 |
| | 36학급 | 3.4 | 1.1 | 3.4 | 2.2 | 2.2 | 2.8 |

주) 교실수산정시 이용율 70%, 실습비율 100%로 가정

초등학교의 경우 전담교과 교사는 주로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등의 실험 또는 실습을 위주로 하는 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최소 한명이상의 전담교과 교사 확보를 위해서는 교과목별로 약 12~18학급 정도의 규모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최소 한실이상의 특별교실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12~18학급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경우 원활한 교육과정 및 효율적인 교실 운영 등을 위해서는 최소 12~18학급 이상의 학교규모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학교의 경우 평균수업시수는 약 19시간 정도로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교과목별로 가능한 학년 당 한명 이상의 교사가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실험·실습을 하는 교사의 경우 상치교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한명이상의 교사가 확보되는 규모가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중학교의 경우 최소한 12~15학급 정도 이상의 규모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1) 한형우(2002),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충남·아산교육청의 사례,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김윤경(2007), 학생수용 및 학교설립지원 기준 시행에 따른 영향 분석, 대구교육대 석사학위논문

또한 실험실습 교과교실의 경우 체육은 최소 2실(체육장/체육관), 음악·미술은 한실 이상 확보되기 위한 조건은 약 18학급이므로 이 이상의 규모에서 교실이용의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9. 중학교 교과별 소요 교사수 및 교실수

| 학급수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기술 가정 | 체육 | 음악 | 미술 | 선택 교과 | 합계 |
|------|-----|-----|-----|-----|-----|----------|-----|-----|-----|----------|-------|
| 총시수 | 442 | 374 | 340 | 510 | 374 | 272 | 272 | 136 | 136 | 204 | 3,060 |
| 주당시수 | 13 | 11 | 10 | 15 | 11 | 8 | 8 | 4 | 4 | 6 | 90 |
| 3 | 0.7 | 0.6 | 0.5 | 0.8 | 0.6 | 0.4 | 0.4 | 0.2 | 0.2 | 0.3 | 4.7 |
| 6 | 1.4 | 1.2 | 1.1 | 1.6 | 1.2 | 0.8 | 0.8 | 0.4 | 0.4 | 0.6 | 9.5 |
| 9 | 2.1 | 1.7 | 1.6 | 2.4 | 1.7 | 1.3 | 1.3 | 0.6 | 0.6 | 0.9 | 14.2 |
| 12 | 2.7 | 2.3 | 2.1 | 3.2 | 2.3 | 1.7 | 1.7 | 0.8 | 0.8 | 1.3 | 18.9 |
| 15 | 3.4 | 2.9 | 2.6 | 3.9 | 2.9 | 2.1 | 2.1 | 1.1 | 1.1 | 1.6 | 23.7 |
| 18 | 4.1 | 3.5 | 3.2 | 4.7 | 3.5 | 2.5 | 2.5 | 1.3 | 1.3 | 1.9 | 28.5 |
| 21 | 4.8 | 4.1 | 3.7 | 5.5 | 4.1 | 2.9 | 2.9 | 1.5 | 1.5 | 2.2 | 33.2 |
| 24 | 5.5 | 4.6 | 4.2 | 6.3 | 4.6 | 3.4 | 3.4 | 1.7 | 1.7 | 2.5 | 37.9 |
| 36 | 8.2 | 6.9 | 6.3 | 9.5 | 6.9 | 5.1 | 5.1 | 2.5 | 2.5 | 3.8 | 56.8 |
| 3 | 0.5 | 0.5 | 0.4 | 0.6 | 0.5 | 0.3 | 0.3 | 0.2 | 0.2 | 0.3 | 3.8 |
| 6 | 1.1 | 0.9 | 0.8 | 1.3 | 0.9 | 0.7 | 0.7 | 0.3 | 0.3 | 0.5 | 7.5 |
| 9 | 1.6 | 1.4 | 1.3 | 1.9 | 1.4 | 1.0 | 1.0 | 0.5 | 0.5 | 0.8 | 11.4 |
| 12 | 2.2 | 1.8 | 1.7 | 2.5 | 1.8 | 1.3 | 1.3 | 0.7 | 0.7 | 1.0 | 15 |
| 15 | 2.7 | 2.3 | 2.1 | 3.2 | 2.3 | 1.7 | 1.7 | 0.8 | 0.8 | 1.3 | 18.9 |
| 18 | 3.3 | 2.8 | 2.5 | 3.8 | 2.8 | 2.0 | 2.0 | 1.0 | 1.0 | 1.5 | 22.7 |
| 21 | 3.8 | 3.2 | 2.9 | 4.4 | 3.2 | 2.4 | 2.4 | 1.2 | 1.2 | 1.8 | 26.5 |
| 24 | 4.4 | 3.7 | 3.4 | 5.0 | 3.7 | 2.7 | 2.7 | 1.3 | 1.3 | 2.0 | 30.2 |
| 36 | 6.6 | 5.5 | 5.0 | 7.6 | 5.5 | 4.0 | 4.0 | 2.0 | 2.0 | 3.0 | 45.2 |

고등학교의 경우 교사의 평균수업시수는 약 16시간으로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주요교과목의 경우 학년당 1인이상의 과목별 교사확보를 위해서는 9학급 이상, 예·체능 교과목의 경우 상치교사 회피를 위해 한명 이상의 교사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12~18학급 정도의 규모 이상이 필요하다.

또한 음악·미술교과목의 실습실을 1실 이상 확보하기 위해서는 24학급 이상의 규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10. 고등학교 교과별 소요 교사수 및 교실수

| 학급수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기술 가정 | 체육 | 음악 | 미술 | 선택 교과 | 합계 |
|------|------|------|------|------|-----|----------|-----|-----|-----|----------|-------|
| 총시수 | 463 | 422 | 605 | 687 | 442 | 204 | 136 | 102 | 102 | 170 | 3,333 |
| 주당시수 | 13.6 | 12.4 | 17.8 | 20.2 | 13 | 6 | 4 | 3 | 3 | 5 | 98 |
| 3 | 0.9 | 0.8 | 1.1 | 1.3 | 0.8 | 0.4 | 0.3 | 0.2 | 0.2 | 0.3 | 6.3 |
| 6 | 1.7 | 1.6 | 2.2 | 2.5 | 1.6 | 0.8 | 0.5 | 0.4 | 0.4 | 0.6 | 12.3 |
| 9 | 2.6 | 2.3 | 3.3 | 3.8 | 2.4 | 1.1 | 0.8 | 0.6 | 0.6 | 0.9 | 18.4 |
| 12 | 3.4 | 3.1 | 4.4 | 5.1 | 3.3 | 1.5 | 1.0 | 0.8 | 0.8 | 1.3 | 24.7 |
| 15 | 4.3 | 3.9 | 5.6 | 6.3 | 4.1 | 1.9 | 1.3 | 0.9 | 0.9 | 1.6 | 30.8 |
| 18 | 5.1 | 4.7 | 6.7 | 7.6 | 4.9 | 2.3 | 1.5 | 1.1 | 1.1 | 1.9 | 36.9 |
| 21 | 6.0 | 5.4 | 7.8 | 8.8 | 5.7 | 2.6 | 1.8 | 1.3 | 1.3 | 2.2 | 42.9 |
| 24 | 6.8 | 6.2 | 8.9 | 10.1 | 6.5 | 3.0 | 2.0 | 1.5 | 1.5 | 2.5 | 49 |
| 36 | 10.2 | 9.3 | 13.3 | 15.2 | 9.8 | 4.5 | 3.0 | 2.3 | 2.3 | 3.8 | 73.7 |
| 3 | 0.6 | 0.5 | 0.7 | 0.8 | 0.5 | 0.3 | 0.2 | 0.1 | 0.1 | 0.2 | 4 |
| 6 | 1.1 | 1.0 | 1.5 | 1.7 | 1.1 | 0.5 | 0.3 | 0.3 | 0.3 | 0.4 | 8.2 |
| 9 | 1.7 | 1.6 | 2.2 | 2.5 | 1.6 | 0.8 | 0.5 | 0.4 | 0.4 | 0.6 | 12.3 |
| 12 | 2.3 | 2.1 | 3.0 | 3.4 | 2.2 | 1.0 | 0.7 | 0.5 | 0.5 | 0.8 | 16.5 |
| 15 | 2.9 | 2.6 | 3.7 | 4.2 | 2.7 | 1.3 | 0.8 | 0.6 | 0.6 | 1.1 | 20.5 |
| 18 | 3.4 | 3.1 | 4.5 | 5.1 | 3.3 | 1.5 | 1.0 | 0.8 | 0.8 | 1.3 | 24.8 |
| 21 | 4.0 | 3.7 | 5.2 | 5.9 | 3.8 | 1.8 | 1.2 | 0.9 | 0.9 | 1.5 | 28.9 |
| 24 | 4.6 | 4.2 | 6.0 | 6.8 | 4.4 | 2.0 | 1.3 | 1.0 | 1.0 | 1.7 | 33 |
| 36 | 6.9 | 6.3 | 9.0 | 10.2 | 6.6 | 3.0 | 2.0 | 1.5 | 1.5 | 2.5 | 49.5 |

이상과 같이 원활한 교육과정 및 효율적인 교실 운영을 위해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최소 12학급~18학급 이상의 규모, 중·고등학교의 경우도 가능한 최소 12학급~18학급 이상의 규모를 확보하는 것이 적

정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3) 적정규모 학교 기준설정(안)

이상과 같이 기존 문헌 및 교육과정·교실운영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의 범위를 분석했을 때 다음과 같이 적정규모 학교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학급수는 전체 수업시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써 적정 학급수는 교사수 및 교실수 등 적정 교육 여건 조성을 통한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설정될 필요가 있다. 복식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1개 학년 당 최소 1개 학급 이상이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6학급 이상, 중학교는 3학급을 최소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학년별 상황에 따른 반배정, 복수교원 배치, 운동회 등 학년 단위의 단체행사, 수준별 수업 등을 위해서는 학년별로 복수의 학급이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최소 12학급 이상, 중학교는 6학급 이상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초등학교의 적정학급수는 기존 선행연구를 토대로 교육적 효과 및 교수학습, 시설활용 측면을 고려할 경우, 초등학교 학년당 최소 학급수 2~3학급(적정학급수 12학급~18학급)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교사들의 평균수업시수(20시간 기준)를 고려하여 교과전담교사를 확보할 경우 적정 학급수는 12학급~18학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초등학교가 12학급 이하일 경우 교과별 수업시수가 작아 과목별로 특별교실을 모두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FGI를 통한 교사 의견을 통해 볼 때 초등학교의 효율적인 학교행정업무(부서 편성 등)를 위해서는 최소 18학급 이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체육교과 활동을 위한 운동장과 체육관의 동시이용 학급수는 3~4학급 정도이며, 특별교실의 이용성 등 효율적인 학교시설활용을 위해서는 36학급 이하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고등학교는 학년별 여건과 문·이과에 따른 반배정이 가능하도록 학년별 2개 학급이 필요하며, 최소 6학급 이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고등학교에서는 수업시수가 작은 교과목에 대해 상치교사, 순회교사 등이 없는 적정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급수는 12학급 이상으로 판단된다. 단, 고등학교의 경우 선택교과의 학생 선호도에 따라 수업시수가 변경됨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중·고등학교에서 수업시수가 많은 주요 교과목

에 대한 복수교사 편성을 위한 학급수는 9학급 이상이며, 학년별 교과목 교사 편성을 위한 적정 학급수는 15학급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고등학교에서 특별교실의 이용효율성을 고려할 경우 18학급~36학급 규모가 적정하다. 단 36학급을 초과할 경우 학생들의 효율적인 이용이 어렵고 과목별 추가 시설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기존 국내외 연구결과를 종합할 경우,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모두 적정 학급수는 18학급이상 ~ 36학급 이하 범위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면·도서벽지)의 경우 학생수 등 지역적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규모 학교의 최소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6학급 이상을 적정범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지속적인 학령인구감소와 학교시설 확충에 따라 2014년 기준 국내외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평균은 초등학교는 22.8명, 중학교는 30.5명, 고등학교는 32.4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학급당 학생수 선행연구에서는 적정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학교 20~25명 내외, 중·고등학교 30~35명 내외를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OECD 2012 교육지표는 초등학교 21명, 중·고등학교 2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교원충원과 대규모 재정 및 시설투자가 필요하고, 현재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학급당 학생수를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적정 학급당 학생수는 기존연구에서 제시한 결과와 OECD 교육지표 그리고 국내외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등학교는 20명 이상 ~ 30명 이하, 중·고등학교는 25명 이상 ~ 35명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단, 초등학교 저학년 및 농·어촌지역(면·도서벽지) 초등학교의 경우 현황을 고려하여 학급당 학생수 10명 ~ 20명,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의 경우 15명 ~ 25명으로 적정범위 설정이 가능하다.

적정규모 학생수 범위는 위에서 설정한 적정 학급규모 범위와 적정 학급당 학생수 범위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적정 학생수 범위는 360명이상 ~ 1,080명 이하, 중·고등학교 적정 학생수 범위는 450명이상 ~ 1,260명 이하로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적정학생수도 농·어촌지역(면·도서벽지) 초등학교의 경우 현황을 고려하여 학생수 60명이상,

중·고등학교의 경우 60명 이상을 최소 적정범위로 설정하도록 하였다.

표11. 적정 학급수 범위 기준(안)

| 구분 | 학급수 | 급당 학생수 | 학생수 |
|--------|-------------|----------------|--------------------|
| 초등학교 | 18학급 ~ 36학급 | 20명이상 ~ 30명 이하 | 360명이상 ~ 1,080명 이하 |
| 중·고등학교 | | 25명이상 ~ 35명 이하 | 450명이상 ~ 1,260명 이하 |

IV-2. 적정규모 육성사업 추진 방안

지역현황 및 실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적정규모 학교 사업추진기준을 설정하며, 원칙적으로 적정규모 기준 범위를 벗어나는 학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앞 절에서 제안한 적정규모학교 기준(안)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지역유형별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추진기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별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추진기준(안)을 고려하여 지역 및 학교 현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도서·벽지 등 통학여건 및 지역의 특수성으로 학교유지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표12. 지역별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추진기준(안)

| 구분 | | 소규모학교 | | | 과대·과밀학교 |
|--------|-----|-----------|---------|---------|-----------|
| | | 면·도서벽지 지역 | 읍지역 | 도시지역 | |
| 초등학교 | 학급수 | 6학급 이하 | 12학급 이하 | 18학급 이하 | 48학급 이상 |
| | 학생수 | 60명 이하 | 180명 이하 | 360명 이하 | 1,440명 초과 |
| 중·고등학교 | 학급수 | 6학급 이하 | 12학급 이하 | 18학급 이하 | 48학급 이상 |
| | 학생수 | 60명 이하 | 240명 이하 | 450명 이하 | 1,680명 초과 |

주1) 초등학교 급당학생수는 면도서지역 10명, 읍지역 15명, 도시지역 20명으로 설정
 주2) 중학교 급당학생수는 면도서지역 10명, 읍지역 20명, 도시지역 25명으로 설정
 주3) 과대·과밀학교 급당학생수 초 30명, 중·고 35명 기준

끝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이 진행된 학교가 적정규모학교 범위에 속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이후에도 해당 학교가 중장기적(10년 이상)으로 추진기준(안)에서 제안한 적정규모 학생수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육성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적정규모학교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내 학생수 및 학교현황 분석,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현황분석, 적정규모학교 가이드라인(안) 제안 등의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적정규모학교 기준(안)은 시·도별 특성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며, 기존 선행연구들의 교육적 효과와 교육과정의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상적인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기준(안)은 학교규모기준과 통학환경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안하며, 향후 시·도교육청별로 지역현황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안)을 마련해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적정규모 학생수 범위는 위에서 설정한 적정 학급수 규모 범위와 적정 학급당 학생수 범위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적정 학생수 범위는 360명 이상 ~ 1,080명 이하, 중·고등학교 적정 학생수 범위는 450명 이상 ~ 1,260명 이하로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적정학생수도 농·어촌지역(면·도서벽지) 초등학교의 경우 현황을 고려하여 학생수 60명 이상, 중·고등학교의 경우도 60명 이상을 최소 적정범위로 설정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은 노후시설개선, 복식학급 및 과밀학급 그리고 상치교사 해소 등을 통한 교육여건개선, 적정규모 학생 및 학급 유지를 통한 교육효과 제고, 교육재정의 적정배분을 통한 효율적인 교육투자 등을 위해 필요하다. 또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절차 및 기준이 시·도별로 달리 마련되어 추진 중이나 갈등의 소지가 많으므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규모의 적정화 정책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되며, 시·도에서도 지역실정을 고려한 탄력적인 적정규모학교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정규모학교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내 학생수 및 학교현황 분석,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현황분석을 통해 적정규모학교 가이드라인(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현황을 분석하여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시·도교육청의 의

견을 수렴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구도심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실제학생이나 담당자와의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율이 적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적정규모학교의 일반적 범주와 지역의 유형을 고려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각 시도별 실정에 최적화된 기준이 아니므로 지역의 실정 및 현황을 반영하여 적용해야 한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가이드라인(안)을 토대로 시·도교육청과의 면밀한 의견수렴절차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가이드라인을 수정 및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적정규모학교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내 학생수 및 학교현황 분석,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현황분석, 적정규모학교 가이드라인(안) 제안 등의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적정규모학교 기준(안)은 시·도별 특성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며, 기존 선행연구들의 교육적 효과와 교육과정의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상적인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적정규모학교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내 학생수 및 학교현황 분석,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현황분석을 통해 적정규모학교 가이드라인(안)을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1. 허숙·강호감, 적정규모학교의 탐색, 교육논총, 2003
2. 한형우,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 석사학위논문, 2002
3. 유웅상·이재림, 적정규모학교의 교육적 효과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2
4. 김윤경, 학생수용 및 학교설립지원 기준 시행에 따른 영향 분석, 대구교육대 석사학위논문, 2007

(논문투고일 : 2016.02.28, 심사완료일 : 2016.04.11, 게재확정일 : 2016.04.18.)